

머큐리

100590 · 광케이블·통신장비

혼재

인터넷·통신망에 쓰이는 광케이블과 공유기·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 KT 등 통신사와 해외에 공급하는 회사.

2026년 09월 16일 증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시총 1,000억 미만 종목 중 거래대금 3위(213.7억), 최근 60일 내 유형자산 양도·공급계약 등 주요 공시 발생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830억	4,840원	+7.08%	214억	적자	0.56배	38.8%	97.2%

쉬운 요약

2년 넘게 밀리던 실적이 이제 막 돌아서려는 지점에 있습니다. 매출은 1,536억(2023)에서 1,239억(2025)으로 줄었고 2년 연속 영업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에 영업이익 13억으로 흑자 전환했고, 7월에는 KT로부터 184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따냈습니다.

다만 같은 2분기에 순손실 59억원이 났습니다. 영업에서는 벌었는데 그 밖에서 크게 잃었다는 뜻이라, 무엇 때문인지 반기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는 올해 봄 AI 광통신 테마로 12,750원까지 치솟았다가 여름에 2,480원까지 80% 추락했고, 9월 들어 미국 광통신주 강세를 타고 다시 4,8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산 대비로는 여전히 싸입니다(PBR 0.56배). '싸다'는 근거는 분명하지만, 돈을 버는 회사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아직 한 분기뿐입니다.

투자 포인트

- 2년 연속 영업적자에서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3억으로 흑자 전환, 7월 KT 184억원 공급계약 (연매출의 15%)
- AI 데이터센터 광케이블 수요라는 산업 순풍 — 유럽·북미 수출 확대 추진, 미국 광통신주 강세에 연동
- PBR 0.56배·부채비율 38.8% — 자산 대비 저평가와 낮은 재무 부담이 하방을 받쳐 줌

핵심 리스크

- 2분기 순손실 59억 — 영업흑자와 반대 방향. 영업외 손실의 정체가 반기보고서로 확인되기 전까지 '턴어라운드'라 부르기 어려움
- 4월 12,750원 → 7월 2,480원(-80%) 급등락 이력. 지금의 상승도 테마 수급 성격이 강하며 외국인 소진율은 한 달 새 6.5%→1.4%로 급감
- 전환사채 발행(5월)과 유형자산 양도(8월) — 본업 현금창출이 부족해 외부 자금과 자산 매각에 기대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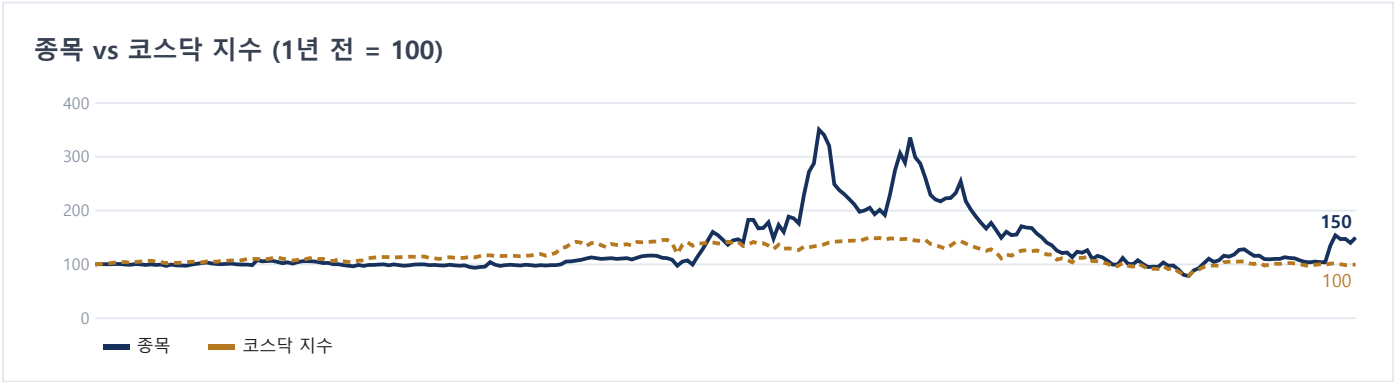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4,355원	+11.1%	-1.7%	+12.9%
1개월 전	4,140원	+16.9%	-5.6%	+22.5%
3개월 전	5,090원	-4.9%	-	-
1년 전	3,215원	+50.5%	-4.2%	+54.8%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4,304,324주	208.3억	3.5x
5일 평균	4,242,982주	206.4억	3.5x
20일 평균	1,302,059주	61.7억	1.1x
60일 평균	561,000주	25.1억	0.5x
1년 평균	1,225,314주	85.6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0916 기준.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 수익률 +50.5%는 착시에 가깝습니다. 1년 전 3,215원에서 지금 4,840원이지만, 그 사이 12,750원(4/13)을 찍고 2,480원(7/29)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62%, 저점 대비 +95%. 이 종목의 1년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테마 급등 → 붕괴 → 2차 반등**의 세 구간입니다. 3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루 15% 이상

오른 날이 8번 있었고, 그 정점에서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5/13)했습니다.

② 지금의 거래량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의 크기입니다.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424만 주는 1년 평균의 3.5배, 20일 평균의 3.3배입니다. 하루 거래대금 200억 원대는 시가총액 830억의 4분의 1이 매일 손바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전율은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가 주도하는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4일, 9월 9일 하루 +30% 상한가가 이번 반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③ 외국인은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7~8월 6.6%에서 9월 1.35%로 급감했습니다. 주가가 2,865원(7월 말)에서 4,840원으로 69% 오르는 동안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6월 이후 들어온 외국인 물량(전환사채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이번 상승을 차익 실현 기회로 썼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반등의 주체가 개인 자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④ 시장과 비교하면 강하지만, 이유는 '업종'입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 -5.6% 대비 종목 +16.9%로 22%p 초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상승 재료는 회사 공시가 아니라 9월 9일 미국 광통신주 급등입니다. 개별 실적이 아니라 업종 수급이 끌어올린 가격은 그 업종이 식으면 같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회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업종이 뜨거워서' 형성된 가격이며, 4~7월의 경험이 그 위험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머큐리는 1982년 설립된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통신사가 가입자 집까지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두 가지 — 선(광케이블)과 장비(공유기·AP·홈게이트웨이·스위치) — 를 모두 만듭니다. 국내 통신 3사 중 특히 KT 계열이 핵심 고객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이 KT의 네트워크 투자(설비투자, CAPEX) 사이클에 연동됩니다. 2024~2025년 매출 감소는 국내 통신사 투자 축소기와 겹치며, 2026년 들어 AI 데이터센터용 광케이블과 히트펌프라는 두 방향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광케이블	통신사 백본망·가입자망(FTTH)용 광케이블, 데이터센터 내부 배선용 고밀도 광케이블. 2026년부터 AI 데이터센터·유럽·북미 수출을 확대 추진(ANGA COM 2026 참가).
네트워크 장비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AP), 홈게이트웨이, 셋톱박스 계열 단말, 기업용 스위치. 통신사 브랜드로 납품되는 ODM/OEM 성격이 강해 통신사 발주 물량에 따라 매출이 출렁임.
IoT·솔루션	스마트홈·산업용 IoT 단말과 공공망 납품 이력. 2026년 히트펌프 사업 진출(리누오리터 MOU)은 IoT 제어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입 시도.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반기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언론 보도상 광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가 양대 축이며, 신사업(히트펌프)은 아직 매출 기여 미확인.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국내 통신사(KT 중심)**이며, 이들이 매년 정하는 망 투자 예산이 곧 머큐리의 수주 규모입니다. 2026년 4월과 7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이어졌고 7월 건은 KT향 184억원입니다. 통신사 투자는 5G 이후 정체기였으나, AI 트래픽 증가로 광 인프라 재투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최근 호재의 배경입니다. 2차 고객군은 **해외 통신사·데이터센터 운영사로**, 유럽(ANGA COM)·북미 시장 개척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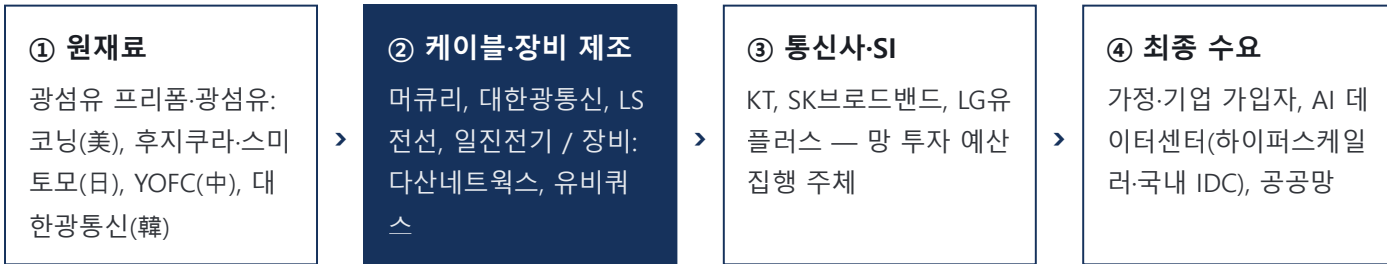
경쟁 구도

광케이블에서는 **대한광통신, LS전선(LS에코에너지), 일진전기**와 경쟁하며, 이들 대부분이 광섬유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거나 대기업 계열이라 원가·규모 면에서 머큐리가 열위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휴맥스** 등이 통신사 발주를 두고 경쟁합니다. 머큐리의 상대적 강점은 '선과 장비를 함께 공급하는 통신사 밀착형 벤더'라는 점이고, 약점은 소수 고객 의존과 낮은 마진(2023년 영업이익률 3.2%)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광통신 인프라 — 원재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광케이블 산업은 위로는 소수 글로벌 광섬유 제조사에, 아래로는 통신사와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투자 예산에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머큐리는 이 사슬의 **중간(케이블 제조·장비 조립)**에 위치하며, 양쪽 끝에서 오는 가격과 수요 변화를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가격 결정력이 없다.** 광섬유는 소수 글로벌 업체가 공급하고, 판매처는 소수 통신사다. 양쪽 다 머큐리보다 크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도 판가에 넘기기 어렵다. 이것이 영업이익률이 3%를 넘기 힘든 구조적 이유다.
- 수요는 '투자 사이클'이지 '소비'가 아니다.** 통신사는 몇 년에 한 번 큰 투자를 하고 그 사이 쉬어간다. 5G 투자(2019~2021)가 끝난 뒤 정체기가 2024~2025년 매출 감소로 나타났고, 다음 사이클의 방아쇠가 AI 트래픽 인지가 지금의 핵심 질문이다.
- AI 데이터센터는 '새 고객'이 아니라 '새 규격'이다.** 데이터센터 내부 배선은 통신사 가입자망보다 고밀도·고속 규격을 요구한다.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기존 제품이 아니라 신규 규격 인증과 레퍼런스가 필요하며, 머큐리는 아직 이 단계의 공시된 수주가 없다.
- 미국 광통신주 주가와 국내 광케이블주 주가는 연동되지만, 실적은 연동되지 않는다.** 코닝·루멘텀 같은 미국 기업의 수혜는 하이퍼스케일러 직납에서 나오고, 국내 중소 케이블사가 그 물량을 받는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주가는 같이 움직이고 실적은 따로 간다.
- 구리 케이블→광케이블 전환은 장기 순풍.** 젠슨 황의 '구리 케이블 한계' 발언처럼 데이터센터 내부까지 광으로 바뀌는 흐름은 산업 전체의 수요를 키운다. 다만 그 수혜가 어느 회사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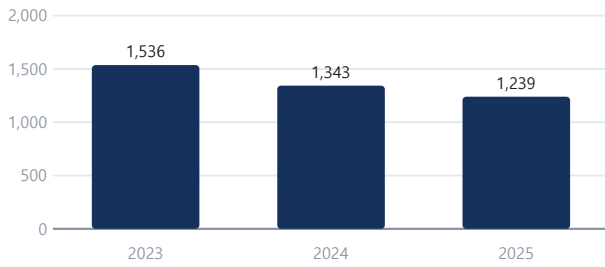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국내 통신사 CAPEX(망 투자 예산)	+	매우 높음	매출의 대부분이 통신사 발주. KT 투자 계획 발표와 집행 시점이 분기 매출을 좌우
AI 데이터센터 투자(국내·해외)	+	높음(기대)	광케이블 수요를 키우는 신규 수요처. 단 실제 수주 공시가 나와야 실적으로 연결
미국 광통신주 주가(코닝·루멘텀 등)	±	매우 높음(주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동조. 9월 9일 +30% 상한가의 직접 원인
광섬유·원자재 가격, 환율	-	중간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 원/달러 상승은 수출에 유리, 수입 원재료에 불리
통신사 단가 인하 압력	-	높음	소수 고객 의존 구조에서 발주처의 단가 협상력이 절대적. 마진 3% 안팎이 그 결과
전환사채·자금조달 이벤트	-	높음	주가 급등 시 전환 물량 출회, 급락 시 전환가 조정·조기상환 요구. 5월 CB가 향후 12~18개월 주가 변수
히트펌프 등 신사업	+	낮음(현재)	MOU 단계. 매출 기여가 확인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음

실적 분석 연간·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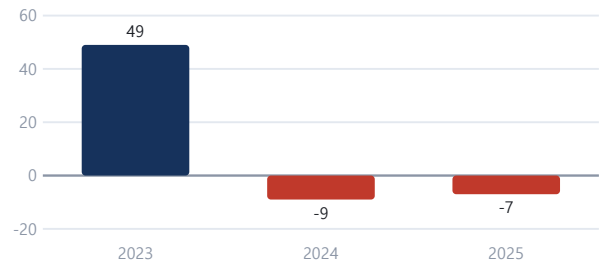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536	49	33	25.2Q	322	-2	7
2024	1,343	-9	-15	25.3Q	296	-3	-7
2025	1,239	-7	-24	25.4Q	405	21	-2
				26.1Q	260	-12	13
				26.2Q	301	13	-59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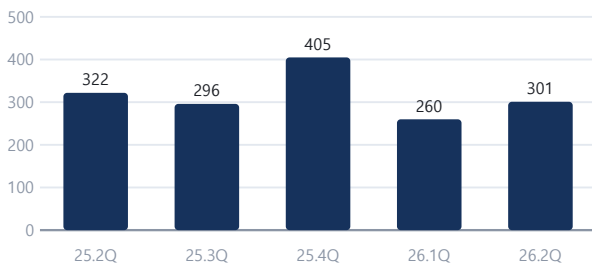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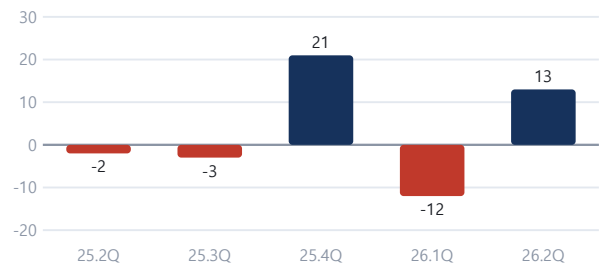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은 3년째 내리막이고, 그 폭은 완만합니다. 1,536억 → 1,343억 → 1,239억. 급락이 아니라 통신사 투자 정체를 그대로 반영한 완만한 축소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매출 1,300억 근처라는 점입니다. 2023년 1,536억일 때 영업이익 49억(3.2%), 1,343억이면 -9억, 1,239억이면 -7억. **매출 100억이 빠지면 이익 50억이 사라지는 높은 고정비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KT 184억 수준처럼 매출이 1,400억대로 돌아오면 이익도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분기 흐름은 '연말 몰아치기'입니다. 25.4Q 매출 405억·영업이익 21억, 26.1Q 260억·-12억. 통신사가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 때문에 4분기가 좋고 1분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26.2Q 301억·13억 흑자는 계절 효과를 감안해도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가장 큰 물음표는 2분기 순손실 59억입니다. 영업이익 13억인데 순손실 59억이면 영업 밖에서 약 7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2025년 연간 순손실(24억)의 세 배입니다. 이 시기(4~6월)는 주가가 12,750원에서 3,935원으로 무너진 구간이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구간입니다.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 재고·자산 손상, 또는 기존 CB 조기상환 관련 비용 등이 후보이며, **어느 것인지에 따라 '일회성'인지 '반복될 것'인지가 갈립니다.** 반기보고서 주석의 '금융비용'과 '기타비용'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아직 양호하지만 방향이 나쁩니다. 부채비율 24%(2025년 말) → 38.8%(2026년 6월), 당좌비율 146% → 97%. 전환사채가 부채로 잡히고 현금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8월 유형자산 양도 결정은 이 흐름에 대한 대응으로 읽힙니다. 유보율 1,087%는 오래 쌓아온 자본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PBR 0.56배라는 저평가가 성립합니다 — 단, 그 자본이 계속 손실로 깎이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13억, 영업이익률 4.4%)

2024~2025년 2년 연속 연간 영업적자에서 벗어난 첫 신호입니다. 직전 1분기 영업손실 12억에서 한 분기 만에 25억원이 개선됐고, 매출도 260억에서 301억으로 늘었습니다. 고정비 구조상 매출 회복이 이익 회복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회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 DART 반기보고서 2026.08.14

KT 184억원 공급계약 — 본업 수주 회복

통신사 투자가 위축된 국면에서 KT로부터 184억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2026.07.23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4월에도 공급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1,239억의 15%에 해당하며, 손익분기점(약 1,300억) 회복에 결정적인 물량입니다.

출처 · DART 2026.07.23 / 경제타임스 2026.07.23

AI 데이터센터 광케이블 수요 — 유럽·북미 공략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광케이블 수요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6월 유럽 최대 케이블 전시회 ANGA COM 2026에 참가해 유럽·북미 시장 공략을 밝혔고, 9월 미국 광통신주 강세에 주가가 27% 급등했습니다. 공공망 납품 이력을 앞세워 통신사 직공급도 추진 중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6.06.12 / 뉴스핌 2026.09.09 / 마켓링크 2026.09.10

자산 대비 저평가 + 낮은 부채

주당 순자산(BPS) 8,603원에 주가 4,840원으로 PBR 0.56배입니다. 유보율 1,087%로 40년간 쌓인 자본이 있고 부채비율도 38.8%로 낮습니다. 이익이 정상화되면 재평가 여지가 큰 구조이며, 급락 시에도 청산가치가 하방을 받쳐 줍니다.

출처 · DART 반기보고서 2026.08.14 / 2026.09.16 종가 기준

히트펌프 신사업 — 통신 밖 두 번째 축

2026년 8월 리누오리터와 MOU를 맺고 IoT를 접목한 히트펌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통신사 투자 사이클에 전적으로 묶인 매출 구조를 분산하려는 시도로, 성공하면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이투데이 2026.08.11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2분기 순손실 59억 — 영업흑자와 정반대 방향

영업이익은 13억 흑자인데 당기순손실은 59억입니다. 주당순손실(EPS) -353원. 영업 밖에서 약 72억의 손실이 났다는 뜻이며, 그 원인(전환사채 관련 평가손실·자산 손상·조기상환 비용 등)이 일회성인지 반복되는 것인지는 반기 보고서 본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출처 · DART 반기보고서 2026.08.14

4월 12,750원 → 7월 2,480원, -80% 급락 이력

올해 3~5월 AI 광통신 테마로 주가가 4배 뛰었다가 두 달 만에 5분의 1로 무너졌습니다. 하루 15% 이상 급등이 8번, 급락 이후 거래량은 1년 평균의 10분의 1로 말랐습니다. 지금의 반등(9월 9일 +30% 상한가 시작)도 같은 성격의 테마 수급이며, 4~7월이 그 결말을 이미 한 번 보여줬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5.08~2026.09

외국인 소진율 6.65% → 1.35% — 반등 구간에서 이탈

7~8월 6.6%대였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9월 1.35%로 급감했습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69%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팔았다는 뜻이며, 이번 상승의 주체가 개인 자금이라는 방증입니다. 6월에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비중(1.9%→6.3%)이 전환사채 관련 자금이었다면, 이번 매도는 그 물량의 차익실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외국인소진율 2026.06~09

3년째 매출 감소, 2년 연속 연간 영업적자

매출 1,536억(2023) → 1,343억(2024) → 1,239억(2025). 영업이익도 49억 흑자에서 -9억, -7억으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흑자는 아직 '한 분기'일 뿐이며, 3분기에도 이어져야 추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2026.03 / 반기보고서 2026.08.14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지분 희석 가능성

2026년 5월 13일, 주가가 고점권에 있을 때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이라,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 지분이 묶어집니다. 1월과 4월에는 기존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공시(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로 추정)도 있었습니다. 새 CB의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면 전환가 하향 조정(리픽싱)으로 희석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2026.05.13 / 2026.04.13 / 2026.01.12

유형자산 양도 결정 —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국면

2026년 8월 18일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습니다. 영업용 자산을 파는 것은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본업의 현금 창출력이 충분치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당좌비율도 146%(2025년 말)에서 97%로 낮아졌습니다.

출처 · DART 2026.08.18 / 반기보고서 2026.08.14

실적보다 테마가 주가를 끄는 구간

9월 들어 '통신장비 테마 상승', '미국 광통신주 강세' 같은 이유로 하루 6~30%씩 움직였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개별 재료보다 업종 수급에 연동된 흐름이라, 미국 광통신주가 조정받으면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최근 5일 거래량이 1년 평균의 3.5배라는 점도 단기 자금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마켓 2026.09.09-09.14-09.16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와 혼동 주의

검색하면 미국 방산업체 '머큐리 시스템즈', 보험사 '머큐리 제너럴', 원자재 트레이더 '머큐리아', AI 기업 '머큐리 프로젝트', 가수 '프레디 머큐리' 기사가 함께 나옵니다. 코스닥 100590과 무관한 기사들입니다. 뉴스로 판단할 때 반드시 종목코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구글뉴스 검색결과 2026.05~09 교차확인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08.18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머큐리
2026.08.14	반기보고서 (2026.06)	머큐리
2026.07.23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머큐리
2026.05.15	분기보고서 (2026.03)	머큐리
2026.05.1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머큐리
2026.04.13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머큐리
2026.04.09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머큐리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머큐리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머큐리
2026.01.1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머큐리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돈이 나갔다 → 돈을 다시 구했다 → 자산을 팔았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1월과 4월에 기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였습니다(보통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회사 현금이 그만큼 나갑니다). 그 직후인 5월 13일, 주가가 고점권일 때 새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 나간 돈을 새 빚으로 메운 차환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습니다. 사이사이 4월과 7월의 공급계약 공시는 본업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지만, 자금 흐름을 보면 2026년 상반기는 '수주로 번 돈'보다 '빚과 자산 매각으로 만든 돈'이 더 컸던 시기입니다. 반기보고서(8/14)에 담긴 2분기 순손실 59억이 이 흐름의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3분기에도 영업흑자가 이어지고 KT 184억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연간 매출이 1,400억대로 복귀. 2분기 순손실이 일회성으로 확인. AI 데이터센터향 첫 공급계약 공시. 이 경우 PBR 0.56배는 정상 수준(0.8~1.0배)으로 재평가될 근거를 갖는다. **조건: 3개 모두 공시로 확인되어야 함.**

기본 시나리오

본업은 연말 계절 효과로 4분기에 흑자, 1분기에 다시 적자를 반복.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7년 이후. 주가는 미국 광통신주와 동조하며 3,500~5,500원 사이에서 테마 수급에 따라 크게 출렁임. 전환사채 전환가 조정의 상단을 누른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2분기 순손실 원인이 반복성 비용(CB 평가손실 등)으로 확인되고, 3분기 영업이익도 적자 복귀. 미국 광통신주 조정과 함께 테마 자금 이탈, 거래량이 4~7월처럼 급감. 전환사채 리픽싱으로 희석 확대. 이 경우 7월 저점(2,480원) 재시험 가능성. **4~7월에 한 번 실제로 일어난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반기보고서 주석에서 2분기 순손실 59억의 원인 항목 확인 (금융비용·기타비용·파생상품평가손실)
2.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지속 여부 (11월 중순 분기보고서) — 계절적으로 약한 분기라 더 의미 있음
3. 5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리픽싱 조건과 전환 청구 시작일
4. AI 데이터센터·해외향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5. 유형자산 양도 대금의 사용처와 당좌비율 100% 회복 여부
6. 미국 광통신주(코닝·루멘텀) 주가 — 이 종목 주가의 선행 지표

한 줄 결론

본업이 돌아설 조짐(2분기 영업흑자, KT 184억 수주)과 재무 저평가(PBR 0.56배)가 같이 있는, 이 구간에서 드물게 균형 잡힌 종목입니다. 다만 **같은 분기의 순손실 59억이 설명되기 전까지는 '흑자 전환'이라고 부르기 이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2,750원에서 7월 2,480원으로 무너진 경험이 말해주듯, 이 종목의 주가는 회사 실적이 아니라 **미국 광통신주와 테마 자금이 정합니다.** 외국인이 이번 반등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그 경고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값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